

RaonAtti

PHILIPPINES 3rd

June 6



1st. Alcala Women

2nd. Playground

3rd. Long journey



수 길의 험한 물결과 거구의 비단' 에도 미동 없는 흐름의 이정표로서,
주저 없이 유려한 변화의 목격자이자 그 한가운데 곳곳하게 선 사람들의
옆자리 를 채우는 이 모든 사실의 증인으로, 우리는 온 6월을 살아냈다.
생노란 희망과 끈적한 연대로 무장하여 세상의 편견과 불가능에 도전하는
뜨거운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이곳의 변화를 손 끝으로 느끼고 생생하게
목격했다. 우리의 6월을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한다.



Aurora, 새로운 떠남 (6월 1일)

우리의 6월은 굵게 우거진 나무들의 짙은 녹음과 어머니들의 밝은 음성이 어우러진 곳, Aurora에서 태어났다. 5월의 일정을 모두 마친 후, 우리는 처음의 그날처럼 다시 한번 짐을 쌌다. 배낭에 온갖 옷들과 모퉁이 해진 노트를 쑤셔 넣으면서 우리는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떠나던 그 날 밤을 떠올렸다. 이 도시의 더운 공기와 늘 우리 곁을 그림자처럼 지켜주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그것만큼이나 익숙해져 있었다. 그 익숙함에서 잠시나마 떠난다고 생각하니 괜히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다. '너희들이 짐을 싸고 있으니 마치 지금이 8월인 것 같아'라고 말하는 쿠야 Morito의 난감한 표정을 보며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쿠야의 표정에 슬쩍 비친 애정과 미련을 훑쳐보며 우리는 이 도시와 이곳의 사람들을 다시금 되돌아 보았다. 이제 이 도시가 우리와 세상을 구분하는 경계가 된 것이다. 우리가 이 도시의 일부로, 이곳 사람들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실감난다. 한국만큼이나 익숙해진 이 도시의 매연과 시끄러운 경적음, 내리 꽃히는 햇살과 물을 머금은 더운 공기, 우리를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진다는 생소함,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설렘과 흥분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했다.

Aurora로 향하는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를 4시간 넘게 달려야 했고, 작은 차 한대도 간신히 지날 것 같은 좁은 길을 낭떠러지 벗 삼아 목숨 걸고 지났다. 요동치는 차 안에서 우리는 울렁거리는 배를 부여잡으며 멀미와 싸웠고, 내리쬐는 햇볕을 그대로 흡수하지만 에어컨은 먹통인 짐통에서 무더위와 사투를 벌였다. 그렇게 도착한 Aurora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곳이었다. 무거운 햇볕을 덮어주는 싱그러운 나무들과 온 사람을 흠뻑 적시는 여유로운 물의 몸짓. 자연이 아직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은 그런 자연에 선뜻 감사하며 소박한 일상을 꾸려나가는 곳. Aurora에서 우리는 풍족한 자연에 감사하며 소소하게 그러나 너무나 값진 매일을 누렸다.



우리는 Aurora에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열흘 동안 필리핀 YMCA 연맹의 사무총장인 Elsie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Elsie의 고향집은 멋진 정원과 깔끔한 실내가 조화로운 평온한 저택이었다. Elsie 가족의 배려로 우리는 낯선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며 무사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Elsie의 조카인 Jerry는 수준급의 요리사로서 매일 우리의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주셨다. 그는 지금 당장 호텔 주방장으로 근무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환상적인 요리실력의 소유자

였다. Aurora에서 Jerry의 음식을 맛본 우리는 참 행운아였다. 아직도 그가 말아준 따끈한 국수 맛이 입가에 침을 고이게 한다. 매일 점심은 Jerry의 음식이 아닌 Alcala의 어머님들이 직접 만들어 주신 음식과 함께 했는데, Cabanatuan에서는 맛볼 수 없던 Ilocano의 색다른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모든 음식들은 항상 엄마가 해준 것 같은 따뜻함이 깃들여 있었는데 그 중에도 가장 인상에 남는 음식은 단연 '쥐 요리'였다. 이곳에서는 술안주로 인기 있는 음식이라며 노릇노릇하게 튀겨(?) 주셨는데, 약간 망설이다 용기 내어 먹어보니, 아주 맛있었다! 닭 튀김과 같은 맛으로 짹짹한 것이 정말 술 안주로 좋을 듯 싶었다. 쥐 고기도 잘 먹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머님들은 크게 웃으셨다.

요리사 Jerry와 더불어 Aurora에서 만난 새 친구는 운전기사 Mac이었다. 매일 아침 8시에 우리를 Alcala 바랑가이까지 차로 데려다 주는 이 친구는 산등성이 만한 덩치에 맞지 않게 수줍을 잘 타는 귀여운 친구였다. 수줍음이 많아 몇 마디 나누지도 못했지만 늘 우리를 배려해주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서 커다란 나무를 닮은 그의 푸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Cabanatuan에 돌아와도 이곳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생각날 것만 같다.



YMCA Women empowerment project

Dreaming YMCA

2006년 방글라데시 경제학자 무하마드 유누스가 마이크로 크레딧¹을 통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나(필자 Young)는 이것이 새로운 세계의 시작, 그 최초의 문임을 직감했다. 만성적 빈곤 탈피와 그 위에 만들어지는 사람들의 지속 가능한 삶, 계급의 붕괴와 평등한 정의의 문이 바로 우리 눈 앞에 있음을 통감했다. 세상은 분명 진화하고 진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Aurora에서 우리는 세상이 진보하고 변화하는 실제의 움직임을 목격할 수 있었다.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혁신적인 무담보 소규모 신용대출은 2001년까지 세계적으로 총 2680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저소득·빈곤층 3천만 가구가 1만여 개의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을 통해 자활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통해 마이크로 크레딧이 세계 빈곤 퇴치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게 된 것은 물론이고, 이 시류가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로 전해져, 실제로 많은 NGO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¹ Micro Credit : 마이크로 크레딧. 방글라데시 경제학자 무하마드 유누스에 의해 설계된 무이자·무담보 소액 대출 방식. 유누스는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을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린 돈의 이자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방글라데시 시민들을 본 후, 은행에 찾아가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은행 관계자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고 답하였다. 유누스는 1976년 직접 은행을 설립하여 150달러 미만의 돈을 담보와 신용보증 없이, 하위 25%의 사람들에게만 대출해 주었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조금씩 오랜 기간에 걸쳐 갚아나가도록 하는 최초의 소액 장기저리 신용대출 은행이었다. 현재 이 은행은 방글라데시 전국에 1,175개의 지점을 두고 1,600억 다카(약 3조 3,600억원)를 대출하는 대형은행이 되었다. 그라민 은행의 규모는 회원 312만 명, 공동체 57만 개, 회원 수신 잔액 1억7천만 달러에 달한다. 누적상환액은 무려 37억 달러(약 3조 7천 억원)에 이른다. 미국·영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이 은행의 성공 사례가 빈곤 퇴치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미국·남미·아프리카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국적 마이크로 크레딧기관인 액시온(ACCION)은 1979년 브라질에서 시작됐다. 이 무보증·무담보 소액대출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자 사업은 남미 14개 국가로 확산됐고, 1991년에 미국으로 전파돼 미국 액시온이 설립됐다. 액시온 프로그램 사용자 상환율은 95~98%에 이른다. 액시온 그룹은 2003년 미국·남미·아프리카에서 대출 고객 총 117만 명, 총 대출 누계액 11억 7천만 달러(약 1조 1천 억원), 미국 기준 평균 대출액 5400달러 수준으로 성장했다.

있다. 특히 필리핀 YMCA 연맹은 마이크로 크레딧 프로그램을 직접 실천하면서 저소득 층에 지속 가능한 수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확립을 꿈꾸고 있다. 동시에 프로그램의 주체를 지역 여성으로 설정하여 여성 인권의 회복 역시 꾀하고 있다. 필리핀 사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특히 농촌 사회일수록 가부장적인 사회 풍토가 심해, 여성이 직업을 갖고 사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수입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설 수 없는 것이다. 필리핀 YMCA는 마이크로 크레딧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과 빈곤층에 지속 가능한 수입을 제공하고 여성이 적극적으로 조직활동에 참여하여 여성인권 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고 있다.

우리는 Aurora에서 이와 같은 Women empowerment project를 관찰하고 이 곳에서 진행 중인 마이크로 크레딧 프로그램이 개인의 삶과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려 했다. 이번 일정은 필리핀 YMCA 연맹에서 라온아띠를 대상으로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이었다. 우리가 Valle Cruz에서 진행 중인 Women empowerment project의 성공 사례 Aurora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자들로부터 그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공동체의 생성 과정을 듣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상상력을 키워나가는데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



현재 필리핀 YMCA는 다양한 농촌 지역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직접 방문했던 Aurora 지역을 비롯하여, Illocos, Tuding, Asunsion 등 여러 지역에서 같은 맥락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Dingras 지역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 8년이 넘는 공동체로서, 원금을 갚고 이익을 내고 이 자금을 통해 공동의 프로젝트(Bakery 사업)를 실천하는 단계이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 지역의 경우 이 같은 관계형성을 위해 1년 동안 인근 지역의 대학생과 스태프가 Home-stay를 하며 함께 생활하였다고 한다. 지역 사업은 조직을 이루기까지의 섬세한 과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마을의 여성들과 의사소통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경청하며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형성이 끈끈하게 자리잡지 않고서는 조직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방문한 Aurora 지역 역시 이 같은 관계를 약 2 년에 걸쳐 완성했다. 필리핀 YMCA 사무총장인 Elsie와 지역 커뮤니티 형성의 전문가인 Tex 교수가 정기적으로 이 지역을 방문해 마이크로 크레디트와 지역 공동체 형성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지역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우리가 직접 Women empowerment project에 참여했던 지역인 Valle Cruz 역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였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양인지 경청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을지 소통하는 것. 관계의 형성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성공적인 사례인 Aurora의 사업장을 관찰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Valle Cruz Women Empowerment project를 실행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즐겁게 고민해 보고자 한다.

Aurora Women empowerment project (6월 1일 ~ 12일)

Alcala 여성들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필리핀 YMCA 연맹에서 직접 주관한 Aurora 지역의 Women empower project는 2005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알카라 어머니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는 YMCA 실무자들의 직접적 도움 없이 지역의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장기간의 여정 끝에 우리는 Maria Aurora시에 도착하였다. Alcala 지역의 어머님들을 만나기 위해 바랑가이 의회로 향하면서 우리는 조직의 역사와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간단히 들어볼 계획이었다. 그런데 바랑가이 사무실에 도착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환영행사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직접 색종이를 오려 만든 환영 인사말부터 마을의 아이들과 어머님들이 함께 준비한 축하 공연까지. 우리는 뜻밖의 환영 행사에 어리둥절했지만 곧 우리 마음이 뜨겁게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어머님들의 밝은 표정과 자신감 넘치는 인사말, 우리를 아끼는 듯한 섬세한 표정과 다부진 악수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건강함과 끈끈한 연대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lcala 어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이번 행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만큼 조직 내 어머님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스스로의 프로젝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Alcala Women Community]

우리는 어머님들의 뜨거운 환영에 보답하는 의미로 즉석에서 Nobody 공연을 선보였다. 음악을 미리 준비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작은 마을에도 Nobody 열풍은 대단했기에 어렵지 않게 음악을 구할 수 있었다. 필리핀에 온 후로 수십 번의 Nobody를 공연했지만 이렇게 즉석에서 공연한 적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정말 실제 원더걸스라도 된 것처럼 신나게 공연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영행사에 참여했던 어머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아주 즐거워해주셔서 우리도 덩달아 신이 났던 듯 싶다. 그렇게 즐거운 환영행사가 마무리되고 우리는 함께할 내일을 약속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어머님들의 미소만큼 환한 10일이 될 것 같은 느낌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우리는 어머님들과의 첫 번째 정식 미팅을 위해 바랑가이 의회로 향했다. 커다란 덩치와는 달리 섬세한 운전솜씨를 자랑하는 우리 친구 Mac. 언제나 든든하게 우리 곁을 지키는 Mac의 어깨너머로 Aurora의 울창한 코코넛 나무 숲이 우리를 스쳐간다. Cabanatuan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맑은 공기와 신선한 바람. 자연이 선물하는 맑음을 마음껏 소비한다. 어머님들을 만나러 가는 이 길은 언제나 이토록 싱그럽다.

어머님들은 우리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반갑고 살가운 표정으로, 마을의 무성한 풀잎들을 사랑살랑 흔드는 간지러운 웃음소리로 우리를 맞아주셨다. 첫 번째 미팅에서 우리는 Alcala 지역에서 진행 중인 Women empowerment project에 대한 대략적 소개와 5년 간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들어볼 수 있었다. Alcala Women empowerment project는 현재 30명 내외의 어머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님들이 6개의 cell(셀)로 나뉘어져 담당 사업을 진행한다. 필리핀 YMCA 사무총장인 Elsie와 지역 커뮤니티 형성의 전문가인 Tex 교수가 정기적으로 이 지역을 방문해 마이크로 크레딧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지역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한 끝에 2년 만에 조직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이다.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은 YMCA에서 일정한 금액의 돈을 빌려주고 개인이 각자의 사업을 진행한 후 일정기간 내에 원금을 YMCA에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원금을 상환할 때는 특별한 이자 없이 원금만을 갚는다. 전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활에 중점을 둔 것이다. 원금을 반납한 후에 들어오는 수입은 공동체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다시 사용된다.

마이크로 크레딧의 근간을 둔 Aurora 프로젝트는 처음에 8천 페소를 개인적으로 대여한 후, 그 자금으로 개인의 사업을 진행했다. Aurora의 경우 대부분 양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나이가 양돈 사업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구성원은 작은 개인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는 '우리는 진보적이고 강한 공동체이다. 우리는 각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행복으로 수용하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사랑으로 보살피며 강하게 연대하는 공동체이다.'라는 비전 아래 어머니들의 연대와 화합을 돈독히 하고 있다. 최초 가입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가입비를 받고 있으며 회원인 어머니들은 한 달에 20 페소의 회비를 지불한다. 공동체의 회의는 매달 한 번씩 Alcala 바랑가이 의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랑가이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정금액의 벌금이 주어지기도 한다.) 공동체는 회장과 부회장, 서기장, 회계부장으로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어머니는 조직이 처음 생겨날 때만 해도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얼굴을 붉혔지만, 지금은 사람을 조직하고 유려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멋진 회장님으로 변신했다.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은 변화하고 있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회계부장님으로부터 그동안 조직이 사용하고 벌어들인 돈의 흐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체는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하고 구성원이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운영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Aurora는 원금 상환율이 높은 조직으로서 원금 상환 후 서서히 공동체의 수입이 생겨나는 상황이다. 어머님들은 월별 회의를 통해 조직의 수입으로 어떠한 공동 사업을 진행할지 토의하고 있다. 현재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Fish-ball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라온아띠 역시 하루 동안 이 작업에 참여하여 어머님과 함께 Fish-ball을 만들었다. 어머님들은 Cell 조직 별로 모여 작업을 진행하셨는데 철저한 위생과정을 거쳐 깔끔하게 음식을 만드셨고, 재료 또한 좋은 것들로 엄선하여 골라 가족들에게 대접하는 것만큼 정성스럽게 Fish-ball을 만드셨다. 또한 작업을 진행하는 내내 즐거운 분위기에 덩달아 우리까지도 흥이 났다. 어머님들은 함께 일을 하는 동료들 넘어, 즐겁게 고민하고 일하는, 서로의 뜻 모를 사정과 아픔까지 말 없이 다독여 주는 가족 같은 관계로 끈끈하게 연대하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 새로운 변화의 반영이었고 그 흐름의 물결에 그림자였다. 우리는 그 뜨거운 그림자 아래에서 왜인지 모르는 평온함과 우리 안에서 일렁이는 새로운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새롭게 추진 중인 사업은 돼지고기 가공업(meat processing)이다. 공동체 어머님들의 대부분이 양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을 실행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이 적고 근접성도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돼지고기의 값이 너무 높은 상태라 사업은 잠정 보류되었다. 돼지고기 가격이 내린다면 언제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구들은 공동으로 구입한 상태이다. 돼지고기 가공업 이외에도 현재 조직 구성원들은 새로운 공동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공동체에 속한 어머님들의 가족이 대부분 농업 관련 종사자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체의 수익 증대를 위해 지역 축제에 참여하여 음식을 판매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역 축제에 참여하고 지역 어머님들을 공동체에서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역 내에서 Alcala 어머니회는 꽤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한 달에 한번 있는 총회를 개최할 때는 지역 바랑가이 의회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의회의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한다. 실제로 우리가 열흘 동안 라온아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도 바랑가이 의회의 시설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Alcala 공동체가 얼마나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따뜻한 경험이었다. 또한 어머님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경험도 있어 지역의 모범 공동체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공동체 내에는 작은 Cell 조직이 6개 존재하는데 조직 전체의 프로젝트를 이 cell 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나누어진 임무는 일정 기간을 중심으로 로테이션 되고 이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프로젝트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어머님들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함께 만들어나가고 계셨다. 참여도가 저조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더 나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어머님들은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었다. (실제로 Cell은 공통 작업인 Fish-ball 사업을 할 때도 적용된다.)



어머님들은 YMCA women empowerment project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겨 만족스럽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전보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 좋다고 하셨습니다. 첫 회의 때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주저하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 서로의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하고 당당한 태도로 그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함께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이는 Alcala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여성이 무얼 할 수 있겠냐는 주변의 만류와 사회의 벽을 넘어, 여성 간의 연대관계를 통해 어머님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 시키고 있었다.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안정된 소속감과 사람을 향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통해 향상되는 끈끈한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 주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향상되는 내면의 자신감과 조직 내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 이것이 여성 권리를 신장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의 씨앗이 된 것이다.



꿈꾸는 돼지

우리는 매일 오전, Alcala 어머님들과 함께 6개의 Cell 조직을 방문하고, 개인 가정과 사업장을 방문하여 각자의 프로젝트를 관찰하였다. 나뭇잎을 투과하여 우리 어깨 위로 훑날리는 가벼운 햇살과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생선냄새 머금은 물바람은 어머님들과의 걷기를 늘 즐겁게 했다. 어머님들은 우리와 함께 걸으며 마을의 이곳 저곳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셨다. 늘 우리 귓가에는 어머님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낭랑한 웃음소리가 머물렀다.



Alcala 어머니회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양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는 각 양돈 사업장을 방문하여 Alcala의 일상을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Hog raising이라 불리는 양돈 사업은 Alcala 어머니회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여성들 스스로가 고안하고 제안한 것이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통해 대출 받은 최초의 금액으로 돼지를 구입해 돌보고 있는 것이다. 3년 이상 돼지를 키워온 가정은 이미 많은 돼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가정도 있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시간에는 늘 커다란 노트를 들고 다니며 이것 저것 적으시던 어머니. 서기를 담당하시던 분이였다. 어머니는 필리핀식 떡을 만들어 매주 시장에 내다 파시는 사업을 하셨다. 이전에도 하고 계셨던 일이지만 YMCA 자금을 통해 사업 진행이 수월하셨던 것 같다. 우리는 가정을 방문하여 어머니와 함께 필리핀 떡 만드는 것을 함께 했다. 한국의 떡과 비슷한 방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한국과 달리 코코넛이 많이 들어간다. 여간 쉽지 않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지만 어머님들과 떡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동체의 한 어머니는 작은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양돈 사업을 하기에 필요한 작업 공간과 노동력이 부족해 관리가 비교적 쉬운 상점 운영을 선택하신 것이다. 양돈 사업만큼 한번에 큰 돈을 얻을 수는 없지만 매일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생활이 훨씬 편안하다고 하셨다. 몇 번이고 어머니는 YMCA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다. 아주 크게, 빛나게 웃으시면서. 어머님들과 매일 오전 여러 가정과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우리는 Alcala의 일상과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했다. 우리가 어머님들 가정의 생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지, 가정에서 매일같이 밖으로 나돈다며 어머님들을 달가워하지 않을지, 즐거운 걷기 속에서도 우리는 늘 걱정과 우려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어머님들은 우리와의 프로그램이 더없이 만족스럽다고 하셨다. 물론 집안일과 개인 사업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지만, 가족들은 그에 대해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문한 한국인들이 어떤 이들인지, 그들이 관찰하는 Alcala 어머니회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한다는 것. 가족들의 이해와 배려가 공동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이다. 또한 마을의 이곳 저곳을 다니며 조직의 건

강함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고 말씀하셨다. 외국인 방문객을 통해 다른 지역 주민들도 Alcalá 어머니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각자의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 가정에 든든한 재산이 생겼다고 즐거워하시는 어머님들. YMCA는 분명 Alcalá의 어머님들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고 있었다. Alcalá의 뒤뜰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수많은 돼지들이 어머님들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꾸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님들의 가정 곳곳을 방문하면서 우리는 철저히 그들의 일부로 살아갔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공유한다는 것은 길고 긴 여정의 복잡한 여행과도 같은 것이니까. 하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걷는다면 언젠가 우리는 같은 길 위에서 새롭게 다시 만날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어머님들과 걷는 이 길이, 수 갈래 이해의 물과 오해의 구름 너머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 믿는다. 같은 방향의 이정표를 보며.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는 문화와 언어,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꿈을 꾸는 돼지를 가졌다. 돼지가 웃으며 우리에게 속삭인다. 우리가 꾸는 꿈이 곧 실현될 것이라고.

Alcala의 아이들

Alcala Women empowerment project를 관찰하고 어머님들의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본래 계획이었으나 어머님들께서는 우리가 머무는 열흘 동안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간단한 수업을 해주길 원하셨다. Alcala 공동체가 형성된 이래로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의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뛰놀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어머님들은 말씀하셨다. 예기치 못한 요구였지만 우리는 즐겁게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는 Valle Cruz, YMCA Summer School을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Alcala의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바로 시작하였다.

우리는 약 10일 동안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수업 계획을 구성했다. 하루에 2시간 30분씩 진행되는 수업은 1시간의 고정적인 태권도 수업과 매일 변동되는 1시간의 미술 및 과학 수업으로 배정했다. 예상치 못한 수업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수업 재료들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한 태권도 도복과 손가락 화석 만들기 재료가 없었더라면 더 어려울 수 있었을 상황이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었더라면, 열흘 간의 수업이 진행되리라는 사실을 미리 전달받았더라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이들과 그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남았다.



오후 1시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짧게 진행되는 수업이지만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어머님들의 든든한 후원으로 더운 날씨에도 아이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다. 아이들은 특히 태권도에 큰 흥미를 느꼈고 수업에 열심히 임해 주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킥 패드나 겨루기를 위한 보호 장비 등은 없었지만 뜨거운 오후 수업에도 열심히 땀 흘려가며 수업에 따라주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우리는 그림을 통한 자기 소개, Alcalá 마을 지도 그리기, 색종이 칠교, 손가락 화석 만들기 등 다양한 수업도 진행하였다.



늘 씩씩하고 활기찬 아이들의 모습은 아주 사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되기도 했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밖으로만 나가려고 우리 손을 이끄는 아이들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쉬는 시간마다 우리 곁을 졸졸 따라다니며 말을 걸고, 온 동네 꽃들을 뿌리까지 뽑아 들고 오며 헤헤 웃고, 뽀뽀 못생긴 글씨로 사랑한다고 적어주는 이 아이들을 우리 역시 아주 많이 사랑한다.

수업이 진행되는 8일이라는 시간은 분명 무언가를 가르치기에는 짧은 시간일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시간으로의 8일을 더없이 감사했다. 아이들과 함께 한 8일이라는 금 같은 시간을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사랑할 것이다.

아주 마지막은 아니게.

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뒷모습만 보인다. 멍청하게 있다가 보면 어느새 지나간 녀석의 뒤통수뿐이다. 어느 새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다. 열흘 이라는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는지. 마지막 만남을 위해 마닐라에서 온 Elsie와 Tex 교수님의 얼굴을 보니 이제 끝이라는 사실이 실감난다. 난감하지만 이미 지난 일. 이제 더 좋은 이별을 위해 노력하는 길 밖엔 없다. 좋은 이별을 위해 슬픔은 잠시 뒤로 미루자.

Elsie와 Tex 교수님과 함께 우리는 더 나은 여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Alcala의 성공적인 커뮤니티 사례를 다른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Valle Cruz의 여성들이 이곳 Alcala를 방문하여 어떻게 Women empowerment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이곳의 여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삶에 대한 영감을 얻는다면, 그보다 좋은 세미나가 없기 때문이다. 여성으로서의 연대감을 바탕으로 변화된 서로의 삶과 생활의 이야기, 사업의 방향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은 아주 값진 일일 것이다. 또한 현재 YMCA에서 주관하는 여러 지역의 여성 공동체들이 연맹을 만들어 서로의 프로젝트와 생각들을 교류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공동체는 더욱 지속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는 차가운 맥주 한 캔과 비를 머금은 축축한 바람을 맞으며 어머니들과의 마지막 만남을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어느 때보다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한다. 오전일과로 Alcala 여성 공동체의 회장님이신 Pina 어머니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우리가 머물렀던 열흘의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며 우리 손을 꼭 잡는 엄마. 거친 그녀의 손을 맞잡으며 지나간 시간을 추억한다. 오전 일과가 끝나고 우리는 오후에 있을 공연을 준비했다. 어머니들과 함께 공연 할 Nobody 댄스를 점검하고 한복이 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채춤 연습을 했다. 순서대로 보아가며 이것 저것 확인해보아도 자꾸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든다. 완벽한 이 상황이 어딘가 어색해서인가 보다. 마지막이 이렇게나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아이들과의 수업을 마쳐갈 즈음 바랑가이 의회 공터에 천막이 쳐지고, 곧이어 Elsie와 Tex 교수님이 의회에 도착했다. 수업이 끝난 후 송별회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바랑가이 회장님과 어머니회의 회장님이 라온아띠를 향한 사랑과 아쉬움을 담아 진심 어린 축사를 해주셨

고, 다음으로 어머님들의 공동체를 격려하는 Elsie와 Tex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필리핀 YMCA 연맹은 Alcala 지역 여성 공동체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를 격려하는 의미로 감사패를 함께 전달하였다. 뒤이어 우리는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었는데, 처음 보는 한국의 전통 의상에 지역 주민들은 환호했고 특히나 공동체 어머님들이 우리를 아름답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는 마지막 시간.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기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꼈다. 마지막 시간은 어머님들과 함께 춤을 추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동안 함께 연습한 Nobody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Ilocos 전통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해가 저물어 가고 비가 올 듯한 성난 구름이 몰려왔지만 우리는 몇 시간이고 그곳에 서서 우리의 춤을 끝내지 않았다. 한 곡만 더!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 정해진 방식 없이 자유롭게 어울려 추는 우리의 이 춤, 우리의 끈끈한 이 관계가 이대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 관계의 마지막이라고 절대 생각지 않는다. 몇 줄기의 눈물과 시간의 뒷모습이 우리를 아쉽게 또 미련하게 하지만, Alcala와 라온아띠의 관계는 이제 막 이곳에서 태어난 셈이다. 어머님들과 뜨겁게 포옹을 하고, 아쉬움에 맞잡은 손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저물어가는 해를 그저 바라만 본다. 우리는 환한 웃음으로, 감히 다음을 약속한다. 나무와 물과 푸른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다시 오고 싶다. 한 곡 더 춤을 춥시다. 끝나지 않을 노래에 맞추어 이 춤을 다시 한번만.

YMCA Day Care Center 건설 현장 (6월 17일 ~ 25일)

Aurora에서의 프로젝트를 마치고 Cabanatuan에 돌아온 우리들은 며칠 간의 휴식을 취한 후 다시 Valle Cruz Daycare center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다. Aurora에서 돌아온 직후 우리들이 때 아닌 감기로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열은 감기 증상을 보이던 필자(Young, 이영림)는 Cabanatuan에 도착하자마자, 감기로 앓아 눕는다. 필리핀 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아팠던 적이 없었던 나였는데 독한 감기를 만나 고열과 격한 기침으로 침대에 쓰러져 며칠 간을 고생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적응을 못한 듯싶다. 우기가 시작되면서, 타는 듯한 불볕 더위와 쌀쌀한 스콜이 몇 시간 간격으로 지속된 것이 원인이었다. 나를 시작으로 Oran(Oran, 권오란)과 Nina(Nina, 류나은)가 감기로 앓아 누웠다. 며칠 간 우리 집에서는 병원 냄새가 가득했을 정도. 지금은 다들 완치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5월에 이어서 우리는 YMCA Day Care Center의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우리가 Aurora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공사 현장은 한층 활기를 띤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후원 반기로 예정되었던 자금의 충원으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공사 현장엔 작업 반장님의 지시에 따라 숙련된 솜씨로 건물을 올려나가는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작업 속도가 빠르지 않아 예정된 단계보다 늦은 감이 있었지만, 모두가 Day care center 건설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할 즈음인 6월 중순은 뼈대만 남았던 앙상한 구조물에 시멘트를 덧대어 매끈하게 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또한 잡초가 무성했던 바닥 위에 모래를 덮어서 평지를 만드는 작업 또한 진행되고 있었다. Matt(고명보)과 Oran(권오란)은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되었다. 숙련도가 필요한 전문 작업은 할 수 없었지만, 비교적 난이도가 낮거나 노동력이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 항상 오른쪽 귀에 연필을 꽂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신 작업 반장 아저씨께서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히 이곳 저곳 지시를 내리고 계셨다. 카리스마 있는 반장님 아래에서 Matt과 Oran은 주로 자갈에서 고운 흙을 걸러내는 일이나 자갈을 외발 수레로 나르는 작업을 도왔다. 시멘트 작업에 전문가이신 두 분의 아저씨는 건물 외벽을 시멘트로 마감하는 작업을 하셨는데, 그 기술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었다. 시멘트 작업 올림픽이 있다면 필리핀 대표로 금메달도 노려볼 만한 훌륭한 솜씨였으니까. 그 외에도, 세상만사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만 같은 나이 지긋한 아저씨와 우리와 나이가 비슷해 처음 본 날부터 친하게 지내는 청년 조멜, 공사장에 아빠가 있어서, 혹은 형이 있어서 그 주변을 배회하는 꼬맹이들. 공사장에 있는 모두와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되었다.



처음 며칠을 제외하고, 여자 단원들은 이후 공사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공사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을 뿐 더러 혹시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해가 될까 싶어서다. Matt과 Oran이 공사 현장에서 진한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때, Gaby(박해린), Nina(류나은) 그

리고 Young(이영림)은 새롭게 건설될 YDCC에서 사용할 의자와 책상을 페인트 칠하는 작업을 했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로부터 기증받은 책-걸상을 손질하고 페인트로 덧칠하고 새것처럼 만드는 작업이었다. 새로운 건물에서, 근사한 책상으로 공부하는 귀여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 독한 페인트 냄새도 잘 참을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각자의 특기를 살려 YDCC에서 수업자료로 쓰일 동화책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동화책은 한국의 전래 동화인 해와 달을 근간으로 했다. Valle Cruz에서 진행한 Summer School 기간 동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 이야기이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도 간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아이들이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커다란 전지 크기 형태로 동화책을 만들기로 했다. Young은 동화책의 이야기 구조와 글을, Gaby는 동화책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Nina는 채색을 담당하였다.

YDCC 건설은 7월 초 완공이 당초의 계획이었다. 공사의 진척 과정으로 보면 예상 일정보다 다소 늦어질 듯 하지만, 우리는 공사가 끝나는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 현장에 참여할 계획이다. 육체적 노동이 자원활동의 본 의미를 해친다고 결코 생각지 않는다. 되려 우리의 노동력이 YDCC에서 공부 할 아이들의 미래를 건설하는 힘이라 생각하면 무엇보다 우리의 땀이 의미 있는 것이다. 새로운 YDCC를 위하여!



여행을 떠나요! (6월 26일 ~ 30일)

6월은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움과 낯섬을 도모하는 계절이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Cabanatuan이라는 뜨거운 도시에 익숙해졌다. 찌는 듯한 더위와 매캐한 매연 냄새도 어느새 우리의 일부가 되었다. 세상과 우리를 나누는 경계가 이 도시 Cabanatuan이 된 것. 6월 초에는 Aurora로, 그리고 6월의 마지막에는 더 먼 곳으로 우리는 새로운 필리핀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다.

여행은 우리의 그림자이자 친형인 Morito, 필리핀 YMCA 연맹의 Pabs, 늘 우리의 고물차를 힘들게 운전해주는 감사한 Alex 아저씨, 멋진 운전 솜씨로 우리를 놀라게 한 Ati 아저씨가 함께 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8시, 쿠야 Morito가 간단한 여행일정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상 출발 시각 새벽 3시? 이거 잘못 본 거 아닌가 싶어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정말 새벽 3시가 출발 시각. 그 외에도 5일 간의 여행 일정표는 빈틈이 없었다. 하루에도 수 많은 관광지를 방문하고 차로 수 시간을 다시 이동하는 바쁜 일정이었던 것.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쿠야의 마음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 그에 무한히 감사하지만, 실제로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곳을 보려 하니 피곤했던 것이 사실이다.



잠은 거의 자지도 못했고 짐을 싸느라 에너지를 온통 소모한 후, 우리는 여행을 떠날 준비를 가까스로 마쳤다. 동이 트기 한참 전. 우리를 태운 차는 미끄러운 밤길을 유유히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아침 8시에 도착한 곳은 역사의 도시 Vigan. 유럽식 건물은 스페인 식민 지배시절에 건설된 것으로 이국적인 풍경이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필리핀의 옛 문화와 정취를 느낄 수 있던 좋은 기회였다. 우리는 또한 여러 박물관과 기념관을 들르며 필리핀의 역사를 여행 길을 따라 함께 했는데 가는 장소마다 쿠야와 가이드가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어서 우리는 보다

쉽게 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Vigan을 지나 필리핀의 북부 Ilocos로 가는 길은 긴 여정이었다. 좁은 길을 스칠 듯 말 듯 뿡뿡 지나면서 우리는 Ilocos로 들어섰다. Ilocos에서 두 번의 필리핀 바다를 만나는 동안, 우리는 늘 바다가 바로 눈 앞에 보이는 숙소에서 지낼 수 있었는데, 이는 숙소 선정에 있어 늘 우리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배려해주는 쿠야 덕분이다. 우리가 보다 편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의 선택으로 우리를 우선시 해주는 그분들이 없었다면 분명 우리의 휴가는 엉망이었을 것이다.



문만 열고 나가면 하얀 모래사장이 우리 발을 간지럽게 하고, 짭짤한 소금기 머금은 축축한 바다 냄새가 우리 코를 반긴다. 우리가 숙소에 도착한 오후, 비가 올 듯 하늘이 꾸물거렸지만 우리는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고 이십대 들어 가장 즐거운 해수욕을 만끽했다. 일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며 우리는 아이처럼 마냥 즐거웠다.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 하늘에서 차가운 물이 쿵쿵 쏟아졌다. 누가 샤워기를 틀어놓았나 보다. 촘촘하게, 그리고 빼곡하게 바다를 채우며 내리던 얇은 비는 오래도록 계속 되었다. 차가운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따뜻한 바다에서 어울어질 저가는 해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우리는 바다의 낭만을 만끽했다. 아름다운 바다와 깨끗한 물, 유난히 자연 경관이 아름다웠던 필리핀 북부. 또 다른 필리핀의 모습이었다.

마지막 일정은 필리핀에서 가장 한국사람이 많다는 Baguio였다. 높은 산악지대에 자리한 도시이니 만큼 찾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낭떠러지를 친구 삼아 으악 아악 소리를 질러가며 스릴 넘치게 도착한 Baguio. 참 이색적인 도시였다. 서늘한 기후와 높은 가옥의 구조, 비탈진 산을 타고 형성된 비스듬한 도시의 형태. 모든 것이 그 동안 필리핀에서 보아온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쌀쌀한 날씨 때문에 긴 팔을 꺼내 입어야 할 정도였고 가파른 오르막 길이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가뭇에 콩 나듯 했다. 마치 다른 나라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먼저 우리는 Baguio YMCA에 방문해 간단한 일정을 소화한 후 다음 날 본격적인 Baguio 탐방을 시작했다. 여기저기 보이는 한국 사람과 한글 간판. 쿠야는 자꾸 다가가서 한국말로 인사를 해보라며 옆구리 쿡쿡 찌르는데, 당최 이건 말이 안 나온다. 아마 우리, 필리핀 사람 다 된 것 같다. 도시가 한 눈에 보이는 곳에서 Baguio의 전경을 바라본 후, 예술가 마을로 들어가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보았다. 공원을 거닐고 노를 젓는 작은 배를 함께 타며 우리는 마지막 휴가의 향기를 만끽했다.



빡빡한 일정으로 차 안에서는 늘 정신을 잃고 잠을 자지만, 우리는 이번 여행을 통해 남은 한 달을 힘차게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다. 우리에게 남은 한 달이라는 귀한 시간을 멋지게 살아내고 싶다. 지금 내 앞자리에서 열심히 즐기고 있는 사랑하는 쿠야 Morito, 맨 앞자리에서 여행

팀을 진두지휘 하는, 늘 환한 미소로 보는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쿠야 Pabs, 걷기 싫어하는 차를 이러 저러 고치며 끌고 다니느라 고생이 많은, 고마운 쿠야 Alex, 하루에 무려 12시간씩 운전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멋쟁이 쿠야 Ati. 하루만 쉬었다 갑시다!





길이 본다. 시간 위로의 걸음이 빨라져 지나온 거리가 부쩍부쩍 늘어난다. 우리의 뒷모습을 따라 지나온 시간들이 미련하게 늘어진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우리 마음에 열매 맺은 사람들의 얼굴을 어루만진다. 그리고 우리가 목격한 6월의 변화가 다시 우리 눈 앞에 선명한 길로 펼쳐진다. 우리는 믿는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함께 6월의 변화를 다시 한번 도모할 수 있음을. 세상은 6월처럼 변화될 수 있다. 이곳의 6월, 그 계절이 곧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